



## 늘어가는 해킹공격, 첨단기술 개발하는 출연연 전담인력조차 미비

출연연 사이버침해공격, 3년 반 동안 4,337건

23개 중 7개 기관만 정보보안 자격 보유 전담인력 배치

- 민병주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출연연 사이버침해공격 및 정보보안 자격 보유 전담인력 현황’에 따르면,
-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3개 출연연이 받은 사이버침해공격은 4,33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형별로 보면 웹·바이러스 시도가 4,294건(99%)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 <표1. 최근 3년간 출연연 유형별 사이버침해공격 시도 현황> 참조

<표1. 최근 3년간 출연연 유형별 사이버침해공격 시도 현황>

(단위 : 건)

	웹·바이러스	자료 훼손/유출	경유지 악용	홈페이지 위/변조	서비스거부 (Dos)	총 합
2010	1,181	4	10	6	1	1,202
2011	1,013	1	7	1	0	1,022
2012	1,247	0	5	3	1	1,256
2013.06	853	0	1	2	1	857
	4,294	5	23	12	3	4,337

\* KIST 부설 녹색기술센터, 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제외

○ 그러나, 첨단 기술 중심의 국가 R&D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23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단 7개(30.4%)의 기관만이 정보보안 유관 자격을 보유한 전담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인력 배치 기관은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7개 기관)임.
- 정보보안 유관 자격 보유자는 정보보안산업기사/기사, SIS(정보보호전문가), CISSP(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 CISA (정보시스템 감사사), CPPG(개인정보 관리자), CHE(윤리적 해커인증), CHFI(디지털 포렌식 조사관) 등의 자격 보유자 혹은 관련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간주함.

\* <표2. 기관별 사이버침해공격 시도 및 정보보안 유관 자격 보유 전담인력 현황> 참조

<표2. 기관별 사이버침해공격 시도 및 정보보안 유관 자격 보유 전담인력 현황 >

(단위 : 건/명)

기관명	침해 건수	기관명	침해 건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77	한국원자력연구원	15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3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5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9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4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50	한국천문연구원	127
한국기계연구원	29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63	한국한의학연구원	52
한국화학연구원	247	한국식품연구원	4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4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1	국가핵융합연구소	3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65	안전성평가연구소	28
한국전기연구원	159	한국재료연구원	20

\* : 정보보안 유관 자격 보유 전담인력 배치 기관

\* 정보보안 유관 자격 보유자 : 정보보안산업기사/기사, SIS(정보보호전문가), CISSP(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 CISA (정보시스템 감사사), CPPG(개인정보 관리자), CHE(윤리적 해커인증), CHFI(디지털 포렌식 조사관) 등의 자격 보유자,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간주함.

- 민병주 의원은 “최근 몇 년간 DDos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심각성이 증대함에 따라 연구원들의 소중한 연구 성과를 지키기 위한 사이버 침해공격에 대한 철저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할 것” 고 지적하며,
- 또한,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만큼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이 충분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규인력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고 강조하였다.